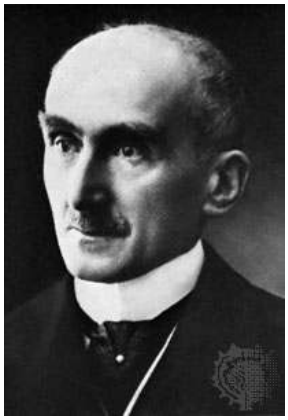
제4강 복수성: 베르그송과 다윈 I

(1교시)



<베르그송>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 베르그송은 두 종류의 복수성(multiplicité)을 구분: ①수적, 공간적, 현실적 복수성과 ② 질적, 시간적, 잠재적 복수성.
→ 이 구분은 과학적 사유와 형이상학적 사유, 물질과 생명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질적 복수성을 '다양체'로 부를 수 있다.

전통 사유가 일자와 다자의 조각그림-오려-맞추기의 사유(樹木型 사유)를 펼쳤다면, 베르그송-들뢰즈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성하는 다양체이다.

▶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차이
1) 들뢰즈에게는 베르그송적인 급진적인 연속주의는 함축되지 않는다.

2) 들뢰즈에게는 물체와 생명체의 날카로운 구분보다는 이들이 함께 형성하는 배치가 문제가 된다.

3) '진화'의 뉘앙스가 훨씬 복잡하게 된다. (리좀, '산종(散種)', '창조적 첩화'.)

4) 베르그송: 氣가 물질성과 생명성으로 이원화되는 구도 / 들뢰즈: 氣가 리좀 상태로 탈주하는 방향과 층화되고 석화되는 방향으로 이원화되는 구도.

www.artnstudy.com